

단속기관 일원화·허술한 법체계 정비 시급

광주일보 공익 캠페인 보험범죄 근절하자

해 근본대책 없나

광주는 보험범죄를 일삼는 한방병원이나 단체 '보험범죄의 온상'으로 꼽힌다. 경찰은 이런 불법에 맞서기 위해 지난해부터 대대적인 보험범죄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펼치고 있다.

15일 광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광주지역 보험범죄 관련 검거건수는 지난 2015년 335명, 2016년 498명, 2017년 1319명 등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2017년은 전년 대비 검거인원이 2.6배 증가했고 무려 30명이 구속되기도 했다.

광주경찰청은 2017년 4월 18개 팀 62명으로 구성된 보험사기 전담팀을 마련해 보험범죄의 근거지로 지목되고 있는 일부 한방병원, 사무장병원 등을 대상으로 특별

보험회사·경찰·병원개설 허가권자 공조체제 구축 필요 편취한 보험금 즉시반환 의무·폐업후 재개설 차단해야

단속을 펼쳤다.

광주경찰청은 2016년 9월 강화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을 토대로 보험범죄를 더 엄격하게 처벌하고 있다.

특별법에 따라 보험사기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며 보험금 편취금액이 많을 경우 최고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처벌하고 있다.

또 광주경찰청은 심각하게 지역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보험범죄에 대처하기 위해 지역 관계 기관들과 협업에도 나서고 있다.

광주경찰청은 지난해 4월 28일 전국 최초로 보험범죄연구회를 창립했다. 보험범죄연구회는 보험범죄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은 광주경찰청 제2부장인 윤명성 경무관이 회장을 맡고 있다. 광주경찰청, 금융

감독원, 광주시,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각 보험사 특별조사팀 등이 참여하고 있다. 또 광주지역 보험사기 척결을 위해 관계기관들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해 다각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하지만 날로 조직화, 흉포화, 지능화하는 보험범죄에 대응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보험범죄 수사는 특성상 증거 수집 등에 많은 인력과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보험사에서 보험사기 의심 사건을 자체 조사하는 특별조사팀은 조사권이 없고 인력도 부족한 실정이다.

또 지자체 보건소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의료기관 점검 및 단속 등이 모두 개별적으로 시행되는 등 효율적이지 못한 것이 한계로 작용하고 있다.

법 체계도 진화하는 범죄를 예방하는 데는 허술하기 짝이 없다.

현행법상 병원의 경우 보험사기로 최종 판결이 내려져도 동일 건물 내 명의만 변경하는 수법으로 재개설이 가능하다. 보험사기 수사가 진행되더라도 병원을 폐업하고 명의만 바꿔 다시 운영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를 방지하기위해 병원허가 관련 제도를 개선해야한다는 게 관련업계의 설명이다.

보험업계는 보험사기로 확정판결을 받을 경우 허위 청구한 보험금 즉시 반환을 의무화하고 보험사기가 발생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보험사기방지특별법에 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손해보험협회 호남지역본부 관계자는 "시민들이 죄의식 없이 사무장 병원을 이용할 경우 일순간 이익을 볼 수는 있겠지만 의료사고 위험은 물론 전과자로 전락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김한영기자 young@kwangju.co.kr

오늘의 날씨 해돋이 06:43 해질 18:40 | **오늘의 날씨** 해돋이 06:04 해질 17:25

꽃구경 가기 좋은 날
고기압의 영향으로 맑았다.

지역별 날씨 (°C)

광주	맑음	8/14	보성	맑음	6/9
목포	맑음	5/10	순천	비온 뒤 맑음	7/12
여수	비온 뒤 맑음	5/11	영광	맑음	4/12
나주	맑음	6/12	진도	맑음	5/9
완도	맑음	7/11	진주	맑음	8/13
구례	비온 뒤 맑음	7/13	군산	맑음	7/12
강진	맑음	6/10	남원	비온 뒤 맑음	6/12
해남	맑음	4/10	축산도	맑음	4/8
장성	맑음	6/13			

◇ 바다 날씨

		오전	파고(m)	오후	파고(m)
서해	앞바다	북~북동	1.0~2.0	북동~동	0.5~1.5
남부	앞바다	북~북동	2.0~3.0	북동~동	2.0~3.0
남해	앞바다	북~북동	1.0~2.0	북~북동	1.0~2.5
서부	앞바다(동)	북~북동	2.0~3.0	북~북동	2.0~4.0
	앞바다(서)	북~북동	2.0~4.0	북동~동	2.0~4.0

◇ 생활지수

니출중	보통
감기	보통
미세먼지	좋음

◇ 물때

	간조	만조
목포	06:49	01:21
	19:19	13:57
여수	02:25	08:56
	14:56	20:58

◇ 주간 날씨

17(토)	18(일)	19(월)	20(화)	21(수)	22(목)	23(금)
2/16	3/15	4/1	5/11	6/11	5/13	3/14



전국 교육감 광주서 한자리 15일 광주시 동구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에 참석한 장휘구 광주시교육감 등 각 지역 교육감들이 '5·18광주민주화운동 교육 전국화 선언문'을 낭독하고 있다. 각 시도 교육감들은 이날 총회에서 아동 학대 및 성범죄자 취업 제한 기관을 추가할 수 있도록 관계 법령 개정을 여성가족부와 보건복지부에 요구하기로 하는 등 안건 8개를 의결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이철성 청장 “경찰 5·18 보고서 국가기록물로 관리”

전남청 방문... “도서지역 경찰력 추가...신안서 내년 1월 착공”

이철성(사진) 경찰청장이 전남지방경찰청에서 지난해 발간해 높은 평가를 받은 '5·18 민주화운동 전남경찰의 역할 보고서'를 국가 공식 기록으로 보관·관리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 청장은 15일 전남경찰청 치안현장 방문에서 “지난해 전남경찰청이 5·18 기록을 분석해 5·18 당시 국민의 안전을 위해 노력한 경찰의 역할 등 의미 있는 내용을 찾아냈다”면서 “관련 자료를 이미 국가기록원에 보관하기로 협의 완료했으며,

국회도서관과 국립중앙도서관 등에도 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청장은 또 문무일 검찰총장이 지난 13일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밝힌 ‘경찰에 대한 지원 통제권 등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이 청장은 “(문 총장의 발언) 이후 검찰이 기존 권력을 내려놓을 뜻이 없다는 언론의 질타가 이어졌는데, 이는 곧 국민의 시각을 반영한 것이 아니겠느냐”고 지적



했다.

이 청장은 이어 “일부에서 경찰권 강화에 대한 우려하는 의견도 잘 알고 있다”며 “국민과 뜻과 시대적 요구에 맞춰 권한이나 기능이 주어지면 그에 상응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각종 우려를 불식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청장은 그동안 치안부채 지지를 받아온 전남도서 지역 치안대책을 묻는 질문에는 “올 하반기 이후 경찰력을 추가할

방침”이라며 “신설 예정인 신안경찰서도 5월까지 설계를 마치고 내년 1월 착공, 2019년 9월 개서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청장은 이날 전남청 방문에 앞서 경찰의 물대포를 맞고 쓰러져 10개월여간 사경을 헤매다 숨진 고(故) 백남기 농민의 보성 집을 방문, 다시 한번 사과의 뜻을 전하기도 했다.

이 청장은 다만 백씨의 아내는 만나지 못했으며, 그의 아들과 보성농민회장 등을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 청장은 16일 광주경찰청과 청소년 경찰학교(옛 광천치안센터) 등을 방문 뒤 상경할 예정이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광주 사교육비 지난해 1인당 24만5천원

전남 15만4천원... 전국 최저

서울 학부모가 지난해 초중고 자녀 1인당 사교육비로 월평균 39만원을 쓸때 광주 학부모들은 24만5000원을 썼던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은 월평균 1인당 학생 사교육비로 15만4000원을 지출했는데 이는 전국 17개 시도에서 가장 적은 금액이었다.

15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7년 초중고 사교육비조사 결과'에 따르면 광주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24만5000원으로 전년(2016년)보다 7.4%(1만7000원) 증가했다. 연단위로 환산하면 가정에서는 학생 1인당 전년보다 20만원4000원 늘어난 294만원을 사교육비로 쓴 셈이다. 사교육에 참여한 학생 비율은 68.2%

로 전년보다 3.4% 포인트 늘었다.

전남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15만7000원으로 전년보다 3.1%(5000원) 감소했다. 연단위로 환산하면 가정에서는 학생 1인당 전년보다 6만원 감소한 188만4000원을 사교육비로 쓴 셈이다. 사교육에 참여한 비율은 지난 2016년 54.9%에서 2017년 56.2%로 1.3% 포인트 올랐다.

같은 기간 전국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27만1000원이었다. 이는 전년 25만6000원보다 5.9%(1만5000원) 오른 값이다. 사교육에 참여한 비율은 70.8%로 전년대비 2.7% 포인트 올랐다.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가 가장 많았던 곳은 서울로 학생 1인당 39만원(연간 468만원)을 썼다. /김형호기자 khh@

“5·18재단 상임이사 공모 중단해야”

광주시민단체 기자회견

광주시민단체들이 5·18기념재단의 혁신을 촉구하며 현재 재단이 진행하고 있는 상임이사 공모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광주시민단체협의회·광주전남진보연대 등은 15일 기자회견을 열고 “5·18재단은 드러난 비위사실조차도 개선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

난해 광주시 감사에서 비위사실을 지적받은 5·18재단은 전면개혁과 함께 이사장·상임이사의 사퇴를 약속했다”며 “하지만 이를 지키지 않았었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상임이사 공모 즉각 중단, 상임이사 사퇴, 범시민개혁위원회 구성, 광주시의 5·18기념재단의 정상화를 위한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호남지역 대표주자 YHB집진기 산업현장/요식업분야 환경을 확보드립니다

Y31Y AS24 YHB 31년의 역사와 기술이 요식업소, 산업현장 **미세먼지/오일미스트/연기**를 완벽히 제거합니다

미스트 크리너

하나의 바디, 네가지 기능
미스트크리너를 새롭게 개발하다

머시닝센터, CNC 선반, 밀링가공
방전기공 외 미스트 발생 공작 기계

요식업소용 전기집진기

직화구이 연기, 미스트, 미세먼지 **민원해결사**

10분에 1번 자동 예이세척

직화구이점 미세먼지 배출주의보 발령
대기오염 규제 대응 해결책

더스트 크리너

백필터 / 카트리지가 / 싸이클론 형

그라인더작업, 금속절단가공, 드릴작업, 아크릴가공
절삭작업, 파쇄, 석재가공 등 분진 발생하는 작업

YHB (주) YHB ECO / 주식회사 YHB www.yhbeco.com / www.yhb.co.kr
E-mail : eco6400@hanmail.net

본사 및 영업본부 : 서울 금천구 가산디지털2로 14 대동테크노터우 12차 501호 Tel. 02-2029-6400 Fax. 02-2029-6404
광주 공장 : 광주광역시 광산구 하남산단5번로 45(장덕동) Tel.062-953-2995
익산 공장 : 전북 익산시 석암로1길 4(용재동) Tel.063-835-4771